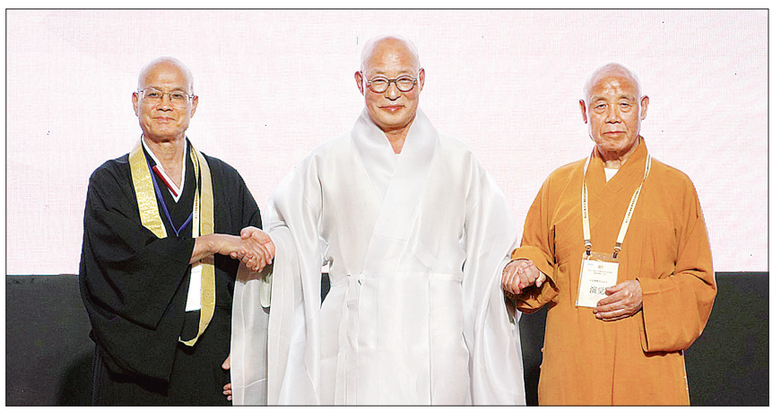
“수행은 사회를 이롭게 하는 실천”

26차 한중일불교우호교류대회

10월 20일, 환영만찬으로 개막
21일 세계평화기원법회 봉행도
“삼국 불교 황금 유대 굳건히”

경주=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10월 20~22일 경주에서 열린 제26차 한중일불교우호교류대회에서 한중일 삼국 불교계는 지속적인 교류를 바탕으로 세계 평화와 화합을 위해 함께 정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삼국 불교계 대표단이 악수를 나누는 모습.

한중일 불교계가 신라 천년고도 경주에 모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삼국의 우의를 다지고, 세계 평화와 화합을 위한 실천 의지를 모았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진우 스님·조계종 총무원장)와 중국불교협회(회장 연각 스님), 일중한국제불교교류협의회(이사장 타케 카쿠쵸 스님)는 10월 20일 경주 힐튼호텔 1층 그랜드볼룸에서 환영만찬을 열고 제26차 교류대회의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22일까지 이어진 이번 대회에는 삼국 불교도 300여 명이 참석해 ‘불교 수행을 통한 사회적 기여’를 주제로 평화와 화합을 위한 불교의 역할을 논의했다.

환영만찬은 불교 교류의 의미를 되새기며 세계평화를 향한 공동의 염원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종단협의회장 진우 스님은 “우리 삼국 불교계는 수행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비행을 확장해 아시아와 전 세계의 고통받는 이들을 보듬고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할 엄중한 시대적 사명을 안고 있다”며 “이는 한국 불교계가 ‘선명상’을 통해 소명을 다하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대회 둘째 날에는 석굴암 참배에 이어 불국사에서 ‘세계평화기원법회’를 봉행했다.

불국사 주지 종천 스님은 환영사에서 “1300년 전 신라인들이 불국사와 석굴암에 불국정토를 향한 원력을 담았듯, 오늘 이곳에서 함께 세운 원력 또한 국경을 넘어 평화와 화합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회에서는 삼국 불교계가 각국의 전통 의식에 따라 부처님 전에 예를 올리며 갈등과 분열이 종식되고 세계 곳곳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했다.

한국 측 의식은 조계종 어산종장 덕림 스님이 집전했다. 종단협 회장단은 칠정례와 석가모니불 정근, 반야심경 합송 등을 함께했으며, 종단협 부회장 도각 스님(관음종 총무원장)은 동북아 평화와 인류 화합, 기후재난의 조속한 복구 등을 축원했다.

진우 스님은 세계평화기원 메시지를 통해 “지구촌의 생태적 위기를 극복하고 상생의 문명사를 열어가고, 기후위기와 고통받는 생명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며,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자비로운 세상의 청사진을 그려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중국과 일본 불교계도 각국의 예불에 이어 평화 메시지를 전하며 불교의 사회적 책임과 실천을 강조했다.

중국불교협회 회장 연각 스님은 더 자비롭고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기 위해 불교의 사회적 기여를 실천하는 것이 삼국 불교계가 짊어진 역사적 책임이라고 밝혔다.

일중한국제불교교류협의회장 이토 유이신 스님은 정토종 종무원장 모테기 예준 스님이 대독한 메시지에서 “보시의 실천이 개인의 수행을 넘어 사회에 대한 공헌으로 이어져 사람들에게 평화와 희망을 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회 후에는 불국사 범영루 앞 잔디에서 삼국 회장단과 불국사 주지 종천 스님이 기념식수를 하며 우호와 연대의 깊이를 더했다.

삼국 불교계는 22일 문화공연과 만찬을 끝으로 대회 공식 일정을 마무리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부회장 상진 스님(태고종 총무원장)은 만찬사를 통해 이번 대회의 성공적인 회향을 축하하고 참석자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이날 진우 스님 연각 스님, 타케 카쿠쵸 스님은 각국의 전통을 담은 기념품을 교환하며 우의를 나눴다.

“본말사 재정 부담 단계적 경감”

10월 22일, 교구본사주지회의
27년도 중앙종무기관 예산안 논의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2027년도 중앙종무기관 예산안 확정을 앞두고 교구본사 주지스님들에게 이를 공유하고 주요 종책 사업에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진우 스님은 본·말사의 재정 부담을 단계적으로 완화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계종은 10월 22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불기 2570년 제2차 교구본사주지회의’를 열고 불기2571(2027)년 중앙종무기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안건으로 다뤘다.

진우 스님은 인사말에서 제38대 총무원장 소임을 맡을 수 있도록 성원을 보내준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진우 스님은 “지난 4년이 종단의 안정과 새로운 변화를 위한 초석을 다진 시간이었다면, 이제 출범한 제38대 집행부는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과 손을 맞잡고 한국불교의 새로운 미래를 힘차게 열어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종단 운영의 근본 원칙으로 제시했던 ‘공의·공감·공심’의 실현도 약속했다. 진우 스님은 “종단의 모든 대소사는 대중의 뜻을 모으는 공의로 결정되어야 하고, 사부대중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진정한 공감이 바탕이 되어야 하며, 오직 불교 중흥만을 생각하는 청정한 공심으로 집행되어야 한다”며 “이러한 삼공(三公)의 원칙은 중앙과 교구가 온전히 하나 될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다.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과 매사 긴밀히 소통하고 머리를 맞대며 살아 숨 쉬는 종단 운영을 함께 일궈가겠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일선 교구와 사찰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동결’ 기조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진우 스님은 “교구본사를 중심으로 한 지역불교 활성화와 미래세대를 위한 전법 종책 연구, 우리 사회 그늘진 곳을 보듬는 자비 나눔 활동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정성을 다해 예산을 배분했다”며 “장기적으로는 분담금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다양한 종단 수익사업을 적극 모색해 본·말사의 재정 부담을 단계적으로 덜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특별교구를 포함한 26개 교구본사 가운데 마곡사, 화엄사, 선암사, 송광사, 선운사를 제외한 21개 교구가 참석했다.

김내영 기자

본사주지협의회장에 성효 스님 선출



조계종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장에 용주사 주지 성효 스님이 선출됐다. 총무원장 선거를 앞두고 교구본사 간 입장 차이로 활동을 중단한 지 약 3개월 만의 활동 재개다.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은 10월 22일 별도 모임을 갖고 성효 스님을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장으로 만장일치 선출했다.

성효 스님은 “선거 제도 등 종단 현안을 두고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원래 화합하는 공동체인 만큼 다시 화합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 협의회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김내영 기자

조계종 제38대 집행부 인선

미래본부장 금강 스님 등
“선명상 운동·전법포교 힘써”

조계종 미래본부 본부장에 금강 스님이, 총무원 포교부장에 정경 스님이 임명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10월 20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미래본부 본부장 등 중앙종무기관 교역직에 임명된 스님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날 조계종 미래본부 본부장에 금강 스님, 총무원 포교부장에 정경 스님, 조계종연구소 소장에 광전 스님이, 한국문화연수원 원장에 태효 스님, 총무원 호법국장에 지안 스님, 조사국장에 선화 스님, 상임감찰에 문수 스님이 임명됐다. 또 직할교구 공찰 청룡암 주지에 총무원 재무부장 여학 스님이 임명됐다.

임명장 수여 후 진우 스님은 미래본부 본부장 소임을 맡은 금강 스님에게 명상 보급과 프로그램 개발 성과를 언급하며 국민 마음 평안을 위한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금강 스님은 지운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85년 수계(사미계)했다. 고불총림선원, 대흥사 동국선원에서 안거를 성만했으며 미황사 주지를 지냈다. 현재 고시위원회 고시위원과 승가교육위원회 승가교육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포교부장 정경 스님에게는 전법포교 확대를 위한 역할을 강조했다. 진우 스님은“전법포교 극대화를 위해 삼원체제에서 총무원으로 일원화된 만큼 포교부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전법이 한층 확대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정경 스님은 지운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96년 사미계를 수지했다. 호국영축사, 보라매법당, 옥천암, 보원사 주지를 지냈으며 현재 간월암 주지를 맡고 있다.

진우 스님은 조계종연구소장을 맡은 광전 스님에게는 한국불교 미래를 위한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주문했다.

한국문화연수원장 태효 스님에게는 연수원의 어려운 운영 여건을 언급하며 “종단과 협력해 연수원 운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힘 써달라”고 당부했다.

임은호 기자

서울 봉은사 주지에 석산 스님

10월 20일 임명장 수여



서울 봉은사 주지에 석산 스님이 임명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10월 20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봉은사 주지 석산 스님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석산 스님의 임명일자는 9월 22일이며, 임기는 2년이다.

진우 스님은 “봉은사는 종단 직영 사찰 가운데서도 가장 큰 규모 사찰이자 서울 강남권을 대표하는 도량”이라며 “스님들의 관심이 높고 불자들에게 기도처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주지 소임에 따르는 책임과 중압감도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석산 스님의 수행과 전법 모습을 지켜보며 주지 소임을 충분히 잘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고 판단해 임명하게 됐다”면서 “전임 주지 스님이 오랫동안 봉은사를 잘 이끌어 온 만큼 그 이상으로 발전시켜 수도권 대표 사찰로서 조계종의 랜드마크 도량으로 역할을 다할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석산 스님은 “종단과 원장 스님의 뜻을 잘 받들어 열심히 하겠다”고 답했다.

임은호 기자

최고의 연등만을 고집해 온

대광불교

대광불교는
연등전문 기업입니다.
대광불교만의 독특한 디자인과
숙련된 노하우로 각종 연등을
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
항상 등불을 밝히는
마음가짐으로 등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광불교
010-9446-1862 | 010-2788-7270
031)768-7270 | 031)768-7271
E-mail : hskhsg@naver.com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자리길 113

연등 자동 승강장치 시공



연화등 공단등